

## 민경구 교수의 출애굽, 구원 이야기 8강 광야의 먹거리

### 시작하기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위의 그림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공급받는 장면을 묘사한다. 계속해서 아래 그림에서는 만나와 함께 '메추라기'가 날아다니는 것이 표현됐다. 이러한 그림들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다는 성서의 해석을 담고 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전통은 오늘날에도 고난에 처한 성도를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재해석되고 있다. 광야 유랑 기간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이러한 이야기는 예술로 재해석 되기도 했다.



Tintoretto, The Manna Harvest (1592년)

많은 주석가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추적했고, 그와 같은 현상이 오늘날에도 시내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몇 가지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

왜냐하면 만나에 대한 기록은 자세히 등장하는 반면, 메추라기에 대한 것은 기록이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만약 우리가 신약 성서를 관찰한다면 이러한 의문은 더욱 증폭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스스로를 “만나”와 비교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 언급한다. 그 밖의 본문에서도 ‘만나’는 신약 성서에서도 중요한 전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와 달리 ‘메추라기’에 대한 언급은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이유로 메추라기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해 질문하게 된다. 특별히 출애굽기-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등장하는 본문을 구약에서 찾다면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11장, 신명기 8장; 여호수아 5장 그리고 시편 78; 105편 정도일 것이다. 시편 105편은 오경 이야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05편을 제외한 나머지 본문들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심도있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 2.1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처음 확인되는 본문은 출애굽기 16장이다. 독특하게도 만나라는 것은 음식의 이름을 알지 못해서 질문한 것이 그것의 명칭이 되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 이야기는 14절 이후에 독자적으로 등장한다. 계속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출애굽 한 백성들은 모세의 말처럼 아침에는 만나를 거두게 되었다(출 16:16). 갑작스럽게 주어진 만나가 언제 또다시 내릴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거두어 다음 날까지 남겨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만나는 다음 날 아침에는 먹지 못하게 되었다(출 16:20). 제1-6일까지 내린 만나는 제 7일에는 내리지 않았다(출 16:26). 제6일에는 평소보다 많은 만나를 집으로 가져왔고, 심지어는 그것을 다음날까지 남겨두었음에도 만나는 전혀 상하지 않았다. 모세의 말에 귀담아듣지 않은 사람은 제7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지만, 헛걸음만 했을 뿐이다.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16장에는 이러한 것을 ‘안식일’ 계명과 연결됐고, 마지막에는 율법 순종과 결부되었다. 즉, 만나 이야기는 본래 양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만,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넘어서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종결되었다.

만나와 함께 언급되는 것이 메추라기 이다. 출애굽기 16:13에 따르면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겠다고 기록되어 있다.

메추라기 이야기는 만나 이야기와 명백하게 비교된다. 13절에서는 메추라기가 내렸다고 나래티브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더 이상 메추라기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출애굽기 본문에서 메추라기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는다.

## 2.2 여호수아 5장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만나 이야기는 어디에서 종결될까? 만나가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이 멈추었다는 기록도 등장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기록을 여호수아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따르면 만나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한 이후에 그 땅의 소산물을 얻게 된 순간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이러한 묘사는 ‘출애굽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받았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첫 소산을 먹음과 함께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그쳤다’는 전통적 이해와 일치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관찰되어야 할 것이 있다. 만나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메추라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메추라기에 대한 언급은 왜 나타나지 않는가?’ 라는 궁금증이 제기된다.

이것은 이미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것처럼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었지만, ‘메추라기’에 대해서는 거의 서술되지 않았다는 것과 일치한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등장하는 메추라기 이야기를 민수기 11장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메추라기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2.3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에서 메추라기에 대해서 묘사하는 본문은 31-32절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나타나지 않던 메추라기 이야기가 민수기 11장에서 이어지는 듯 하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민수기 11장에는 메추라기가 등장할까?

민수기 11:4에는 가장 먼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는 질문이 나타난다. 게다가 본문에 따르면 출애굽 한 히브리인은 자신들의 식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적어도 민수기 11:6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한 이후부터 민수기 11장에 이르기까지 과연 메추라기를 지속적으로 먹었는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히브리인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있을 뿐이지, 출애굽기 16:13에 기록된 것처럼 메추라기가 저녁에 내리는 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백성들은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에 하나님은 진노했다고 민수기 11:10에는 서술되었다. 따라서 민수기 11장 저자는 출애굽 한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 이후부터 민수기 11장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은 것으로 이해하지만, 아마도 메추라기에 대해서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인다.

계속해서 민수기 11:18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다. 눈에 띄는 것은 이후 19-20절에서 나타나는 서술이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몇몇 표현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그리고 “멸시하다/ 거절하다”(마아스)라는 것이다. 첫째로 “냄새도 싫어하기까지”라는 것은 본래 ‘너희의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냄새가 역겨워 거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는 것은 민수기 11:19-20절에서 하나의 징벌로 기록되고 있다. 게다가 그것은 “멸시하다/ 거절하다”라는 용어와 연결되었는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백성을 거절한다는 심판과 결부되었다. 즉, 민수기 11장에 기록된 메추라기 사건은 호세아가 심판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과 버금간다.

두 번째로 “한 달”이라는 언급이 눈에 띈다. 그것은 광야 생활 유랑을 하는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먹는 기간을 말한다. 즉, 히브리인은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메추라기를 먹었다기보다는 ‘한 달’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에 메추라기를 먹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민수기 11:31과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귀결된다.

결국 민수기 11장은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메추라기로 먹었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추라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메추라기 이야기는 오늘날 전통적 해석과 동일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출애굽 한 히브리인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전통적 이해에 의문이 제기된다.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만나를 먹었으며, 가나안 땅의 첫 소산을 먹었을 때 만남은 그치게 되었다. 그와 달리 메추라기는 특정한 시기와 기간 동안 먹은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분노의 징표로 사용되기도 했다.

## 마무리하기

우리는 위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 보았다. 전통적인 관점은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 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게다가 학자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현상임을 설명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서 기록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긍정적으로 주어졌다는 기록은 출애굽기 16장을 제외한다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만나가 그쳤다는 것을 서술하는 여호수아 5:12에는 메추라기에 대한 기록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메추라기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민수기 11장에서 등장한다. 민수기 11:5에 따르면 출애굽 한 백성들은 오직 ‘만나’를 먹었을 뿐이다. 따라서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것처럼 만나가 계속해서 주어졌다는 성서 진술은 재확인되지만, 메추라기는 지속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관찰된다. 심지어 민수기 11:19-20에 따르면 메추라기는 특정 기간 동안에 주어졌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로 이해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만나를 먹었으며, 가나안 땅의 첫 소산을 먹었을 때 만나를 그쳤다. 그와 달리 메추라기는 특정한 시기와 기간 동안 먹었을 뿐이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분노의 징표로 사용되기도 했다.

# 나침반 바이블